

## 응의 마음의 구조, 유형론과 李濟馬의 知人論, 四象人과의 비교 고찰

金仁泰\*·高炳熙\*·宋一炳\*

### 요 약

응과 東武 李濟馬의 知人論과 인간의 유형 연구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응의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탐구한 작업이나 李濟馬의 知人論은 각각의 類型論의 기본개념 설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들은 인간의 심성의 분석을 통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類型論을 개발해내었다.
2. 인식의 체계로서는 응은 의식, 개인적 무의식, 집단적 무의식, 자기의 四象論的 構造로, 李濟馬는 事心身物의 四象論的 構造로서 인간을 설명하려 하였다. 그리고 유형론으로는 응은 사고형·감정형·감각형·직관형의 4개로, 이제마는 太陽人·少陽人·太陰人·少陰人의 4개로 나누었다. 공통적으로 四象論的 構造라는 점에 양자간의 유사성이 있다.
3. 응은 의식과 무의식을 탐구하였고 李濟馬는 仁義禮智인 性和 鄙薄貪懶의 心慾을 탐구하였는데 양자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또, 의식, 무의식과 君子之心, 小人之心의 관련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4. 李濟馬의 大同, 各立, 行其知, 行其行과 好善, 惡惡, 邪心, 怠行 그리고 臟腑의 大小關係등은 응이 말한 제1기능(우월기능), 제2기능, 제3기능, 제4기능(열등기능)의 구분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5. 응의 사고형·감정형·감각형·직관형의 4분류와 李濟馬의 太陽人·少陽人·太陰人·少陰人과의 관계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科

## I. 서론

인간의 유형을 구분하려는 노력은 동서를 막론하고 계속 되어왔다. 서양에서는 갈레누스가 히포크라테스의 體液說에 依據하여 人間을 多血質, 膽汁質, 黑膽汁質, 粘液質의 四類型體質로 분류하였고 시가우드는 呼吸型, 消化型, 筋型, 腦型으로 분류하였다. 또, ABO의 혈액형에 의한 분류 등 여러 가지 분류가 있다.<sup>1)</sup>

동양에서는 內經에서의 五態人論, 陰陽二十五人論과 張景岳의 陰陽人論 등이 있었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유형들은 대개는 인간의 외형이나 신체적 특징을 바탕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고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여 그에 따른 편차를 보고 유형을 나누어 그에 따른 양생의 방법까지 제시해준 것은 없었다.

그러나 李濟馬는 格致藥에서 인간의 심성을 깊이 연구하여 知人の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知人하여 治心正己하여 中庸에 이르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하는데는 事心身物이란 四象論의 構造<sup>3)</sup>를 이용하는데 李濟馬는 이러한 知人論을 실제에 응용하여 四象人을 설정하고 體質의 知人論을 정립하였으며 거기에 따른 體質的 正己論이 나오게 된다.<sup>4)</sup> 이러한 體質的 正己論과 體質 醫學을 낳게 되었는데 이것은 기존의 의학의 획일적인 인간 파악을 극복한, 각 개체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sup>5)</sup>

서양에 있어서도 칼 구스타프 융은 정신과 의사로서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깊이 연구하였는데 의식, 개인적 무의식, 집단적 무의식, 자아의 네 단계로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이란 四象論의인 構造를 통하여 유형론을 만들었다. 그는 무의식에 대한 분석을 통한 그것의 분화를 강조하였다. 그렇지 않고 무의식이 과보상되면 그 반

응은 고태적, 환원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여러 가지 정신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말하였다.<sup>6)</sup>

이러한 李濟馬와 융의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구조나 유형론은 어느정도 유사한 점이 많다. 이에 저자는 융의 마음의 구조와 유형론을 정리하고, 이와 李濟馬의 知人論과 四象人에 대해 서로 비교 고찰해보고자 한다.

## II. 융 심리학에서의 마음의 구조<sup>7)</sup>

### 1. 의식과 자아

융 심리학에 있어서 마음의 구조는 크게 4단계로 나뉜다. 자아, 개인적 무의식, 집단적 무의식, 자기의 4단계이다.

개인이 처음 알고 있는 마음의 부분은 의식뿐이다. 의식은 아주 일찍, 즉 출생 이전에 나타난다. 의식은 첫째로는 자기자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둘째로는 일련의 기억을 통하여 형성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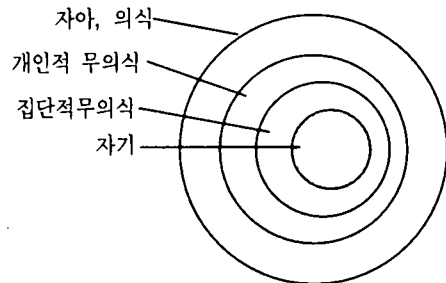


그림 1. 마음의 구조

다. 그리고 그 뒤 많은 것이 의식을 구성한다. 정신적 기능의 분화, 여러 가지 종류의 개인적 분화 등이 뒤따른다. 사고, 감정, 감각, 직관 등 용의 그림이든바 정신의 네 가지 기본구조도 의식의 내용이 된다. 이것은 물론 그 분화 정도에 따라 무의식의 내용이 될 수도 있다.

개인의 의식이 타인으로부터 분화되어 개성화 하는 과정을 '개성화'라 부른다. 개성화는 심리적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 용은 개성화라는 말을 한 인간이 '개인', '분할할 수 없는 것', 즉 별개의 분할이 불가능한 통일체 또는 '전체'가 되는 과정을 가리키기 위해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개성화의 목표는 가능한 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즉 '자기의식'에 있다.

용은 의식적 마음의 구성을 가리키기 위해 자아라는 말을 쓴다. 자아는 의식적인 지각, 기억, 생각,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신 전체 속에서 자아는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만, 의식에 대한 문지기라는 매우 중요한 구실을 맡고 있다. 자아는 한편으로는 外界와 관계를 맺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마음, 內界와 관계를 갖도록 되어있다. 자아는 종류장치와 비슷하여 많은 심리적 자료들이 그 속에 넣어지지만 거기에서 나와 완전한 자각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아주 적다. 매일 우리는 막대한 수의 체험을 하는데 그 대부분은 의식에 도달하기 전에 자아에게 제거되어 의식적으로 되지 않는다. 인간은 자아가 경험의 의식화를 허용하는 한계 안에서만 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

자아가 의식화를 허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결정은 상위기능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감정적 유형인 사람의 자아는 더욱 많은 정서적 경험의 의식화를 허락할 것이다. 사고적 유형이면 감정보다 생각 쪽이 의식화되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것은 경험이 자아에게 얼마만큼 불안을 자아내는

가에 의해 결정된다. 불안을 자아내는 관념과 기억은 의식화되기 어렵다. 또 부분적으로 그것은 어느 정도 개성화가 달성되어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고도로 개성화된 사람의 자아는 더 많은 경험의 강도에 의해 결정된다. 약한 경험은 자아의 문에서 간단히 거부당하지만, 매우 강한 경험은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다.

## 2. 개인적 무의식

용은 무의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았다. 그 중에서 개인적 무의식이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겪은 개인 생활에서의 체험 내용 가운데서 무슨 이유에서든 잊어버린 것, 현실세계의 도덕관이나 가치관 때문에 현실에 어울리지 않아 억압된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한다.

즉, 의식적인 개성화 또는 기능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심리적 활동과 내용을 받아들이는 저장소이다. 이와 같은 무의식의 층은 의식이 그러한 것처럼 개인의 특수한 생활체험과 관련되고 개인의 성격상의 특성을 이루게 된다.

## 3. 집단적 무의식

용은 또한 무의식 가운데는 개인적인 특성과 관계 없이 사람이면 누구에게서나 발견되는 보편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태어난 이후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나오는 무의식의 층으로 일찍이 의식된 일이 없는 것들이다.

이것은 개인의 특성보다는 인류 일반의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들이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에서 용은 이를 집단적 무의식이라 하였다. 집단적 무의식은 인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근원

적 유형(원형)들에 의해 구성된다. 근원적 유형 또는 원형이란 지리적 차이, 문화나 인종의 차이와 관련 없이 존재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행동유형을 말하는데, 이것은 신화를 산출하는 그릇이며 우리 마음 속의 종교적 원천이다.

#### 4. 그림자

그림자란 자아의 어두운 면, 즉 무의식적인 측면에 있는 나의 분신이다. 자아의식이 강하게 조명되면 될수록 그림자의 어둠은 짙어지게 된다. 선한 자아를 주장하면 할수록 악한 것이 그 뒤에서 짙게 도사리게 되며 선한 의지를 뚫고 나올 때 자아는 느닷없는 악한 충동의 제물이 됨으로써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의식될 기회를 잃었으므로 미분화된 채로 남아 있는 원시적인 심리적 경향, 심리적 특징들이다. 그러므로 그림자는 그것이 외계의 대상으로 투사되거나 자아가 그것을 처음 의식할 때에는 미숙하고 열등하고 부도덕하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들이어서 좀처럼 자아가 자신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기 꺼리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림자는 본래부터 악한 것은 아니어서, 의식화가 되면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그림자의 개념이 선에 대응하는 악의 기능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의 기능, 창조적인 요소로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마치 陰陽論에서 陰이 陽이 될 수 있고 陽이 陰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자는 흔히 외계에 투사되며 대개는 투사됨으로써 비로소 그림자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림자가 투사될 때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게', '공연히', 어떤 대상에 대하여 혐오감이나 그 밖의 부정적인 감정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

다. 그림자는 자아의 바로 밑바닥의 어두운 그늘 속에 있는 심리적 경향 또는 내용이므로 그 특징은 상당히 자아의식의 특징과 닮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림자의 투사는 곧잘 자아와 비슷한 대상에 향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의 그림자들을 하나씩 소화시켜 나갈 때 우리의 의식은 그만큼 넓어지며 자기 자신의 통찰도 그만큼 깊어질 수 있게 된다.

#### 5. 페르조나

자아는 외계세계와 접촉하는 가운데 자아는 외부의 집단세계에 적응하는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을 익히게 된다. 이것을 페르조나라고 한다. 또한 이것은 외적 인격이라고도 불린다.

페르조나는 집단정신의 한 단면이다. 우리 나라 말에서 페르조나에 해당하는 말은 체면, 얼굴, 낯, 본분, 도리, 사명 등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어떠한 집단에서 어떤 칭호를 받게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論語에서의 正名의 의미가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페르조나는 그 사람의 자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즉 그 사람의 實相이 아닌 假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자기 자신과 페르조나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너무도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경우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개성화를 성취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요컨대 페르조나는 인간이 사회에서 적응해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이나 지나친 자기와의 동일시는 경계하여야 한다.

#### 6. 아니마, 아니무스

외적 인격과 대비되는 것으로 내적 인격을 생각할

수 있다. 내적 인격이란 자아가 무의식계에 적응하는 가운데 생기는 태도를 말한다. 아니마, 아니무스란 이러한 내적 인격을 말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에 있는 여성적 요소를 말하고 아니무스란 여성의 무의식에 있는 남성적 요소를 말한다. 태초에는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모두 다 존재하였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남성은 남성적인 요소인 아니무스를 계속 의식화 시켜왔고 여성은 여성적 요소인 아니마를 계속 의식화 시켜온 결과, 각각의 대응되는 것은 무의식에 존재해 있게 되는 것이다. 아니마나 아니무스는 인류가 조상 대대로 이성에 관하여 경험한 모든 것의 집전물이다. 그것은 남성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경험의 총화이며 여성에서 남성에 대한 경험을 통틀은 것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인간의 정신 속에 전승된 남성적 요소, 여성적 요소이다. 우리가 흔히 이상형의 異性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잠재된 아니마, 아니무스의 투사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투사의 최초의 경우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많다.

페르조나의 경우는 지나치게 발달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지나치게 억압되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계집아이 같은 소년, 사내아이 같은 소녀에 대한 놀림이 시작되는 어린이시절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해 페르조나가 아니마, 아니무스를 억압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억압이 너무도 심해져서 아니마, 아니무스가 반대급부적으로 반란이 터지면 개인은 과도하게 반응을 한다. 여장을 하고 싶어하는 남성, 나약한 동성애자들 중에는 이러한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 7. 콤플렉스

콤플렉스란 情感的으로 강조된 심리적 내용, 또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심적 요소의 어떤 일정한 군집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콤플렉스는 열등의식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 그것보다도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에 몹시 몰두해 있어 다른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때, 또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콤플렉스는 하나의 핵요소를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이 핵요소는 강한 정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핵요소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인과적으로 환경과 결부되어 있는 체험에 의해 정해진 조건이며, 다른 하나는 소인적인 성질을 띤 그 개체의 성격에 내재하는 조건이다. 이와 같이 핵요소 주변에 여러 심리적 내용이 모이고 연결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핵요소의 배열력에 의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을 배열이라 부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콤플렉스를 형성하게 된다. 또, 이러한 배열은 의식에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콤플렉스는 의식되기 쉬운 것의 억압된 것이나 아직은 의식되기 어려운 이질적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콤플렉스는 무의식 뿐 아닌 의식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콤플렉스는 보통 그것이 의식화하려면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래부터 병적인 내용을 가진 것은 아니다. 콤플렉스가 노이로제나 그 밖의 병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 병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존재를 거의 병적으로 보지 않으려 하거나 억누르려는 의식의 잘못된 태도 때문이다. 그것은 분화된 것이든 원시적인 것이든 정신의 특유한 생명현상이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정신의 생생한 통합체이며, 무의식의 존재와 그 형성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콤플렉스를 통해서일 뿐이다.

콤플렉스란 정신적 체질이다. 누구에게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선결된 것이다. 따라서 콤플렉스를 의식

화하는 것은 인격성숙에 중요한 과제가 된다.

## 8. 자 기

인간에게는 전체로서 살 것을 스스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이 그 자신으로서 살지 않고 그의 어느 한 면만을 내세우고 살면 언젠가는 그의 다른 면이 그의 삶의 일부로 마저 참여시켜주기를 요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자아가 의식에만 집착 되면 무의식은 대상기능을 발휘하여 의식에 포함되어 전체가 되려고 한다. 무의식은 마음에 심층에 있는 언제나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가 되게끔 하려는 원동력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원형의 기능이다.

자기란 의식과 무의식을 통틀어 하나인 그의 전부를 말한다. 이것을 원형으로 다루는 이유는 전체가 되고자 하는 기능이 원초적으로 인간에게 조건 지워져 있다고 하는 견해에서 온 것이다. 즉, 인간의 무의식에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전체가 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다.

한의학에서도 역시 전체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전체란 이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의식을 포함한 아니마, 아니무스, 페르조나 등 무의식의 모든 속성을 포함한 전체이다.

자기 자신이란 글자 그대로 그 사람 자신을 말한다. 어느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사람의 전체'를 말한다는 뜻에서 진정한 의미의 개성과도 같은 뜻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眞如의 개념과도 유사하며 佛性, 法身이 모두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인 마음, 一心에 도달하고자 하는 추구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데 자기 실현이란 어느 하나 일정한 틀을 갖춘 隸人型이나 聖人型이 아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크기 속에서의 隸一性을 말한다. 이러한 완전한 자기의 실현을

이룩하기보다는 자기를 인식하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옴은 강조한다.

자기의 원형의 개념은 옴의 집합무의식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그가 자기의 원형을 발견한 것은 다른 모든 원형에 관한 가장 철저한 연구와 저술이 끝난 후의 일 이었다. "자기는 인생의 목표이다. 자기는 우리가 개성이라 부르고 있는 운명적 통일체의 가장 완벽한 표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옴의 결론이다.

## Ⅲ. 심리학적 유형론<sup>8)</sup>

옴은 1920년에 심리학적 유형에 관한 그의 여러 논문들을 집대성해서 출간하였다. 그는 여기서 이 학설이 정신과의로서 그가 임상에서 관찰해온 모든 경험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사회 계층에서의 인간 관계, 그 자신의 프로이드와 반대론자들과의 대결과 갈등, 그의 학설의 특이성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비판의 근거를 살펴가는 데서 생긴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이러한 여러 관계나 갈등의 원인이 유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였다. 인간의 판단을 미리부터 결정하고 제약하는 어떠한 유형이 있음을 가정하였다.

그의 유형에 관한 연구에서 되풀이 되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인간 정신에 내포되어있는 두 가지 상반된 양극의 존재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반된 성향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서로 하나로 통일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도교에서 나오는 對極合一과도 유사한 것으로 실제로 옴은 이러한 내용을 그의 논문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다.

옴은 심리학적 유형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첫째는 일반적인 태도상에서 보는 유형으로 내향적 태도, 외향적 태도를 말하며, 둘째는 정신의

각 특수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그 중 적응과정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분화된 기능에 따라 구분하는 유형으로 이를 기능 유형이라 하였다.

## 1. 일반적 태도의 유형

일반적 태도의 유형은 내향적 태도와 외향적 태도를 구분하는 것인데 이에 관한 설명에 앞서 객관적과 주관적이란 용어의 구분이 먼저 필요하다. 객관적이란 개인을 둘러싼 외적인 세계, 즉 인간과 사물, 풍속과 관습,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 물리적 조건의 세계를 말한다. 이 객관적 세계는 환경, 주의 또는 외적 현실이라 불린다. 주관적이란 정신의 내면세계, 즉 사적 세계를 가리키고 있다. 사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외적인 사람은 직접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향적, 외향적 태도의 구별은 그 개체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사람의 태도가 객체를 주체보다 중요시하면 그는 외향적 태도를 취한다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객체보다도 주체를 중요시하면 그는 내향적 태도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객관적 지향이 우세하면 그 사람은 외향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주관적 지향이 우수하면 그 사람은 내향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쪽의 태도가 우세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도의 문제이다. 개인은 다소간에 외향적 또는 내향적인 경우는 있으나, 전면적으로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인 경우는 없다.

### (1) 외향형

중요한 결정이나 행동의 대부분이 주체의 의견에 의하지 않고, 객관적인 상황에 의해서 좌우될 때 이를 외향적 태도라 하고, 이런 외향적 태도가 습성화

되어 그의 생활의 일정한 특징을 이루면 그를 외향형이라 부른다. 즉 외향형 사람은 늘 객체에 맞추고 객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판단해 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외향형이라고 해서 주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관보다는 객체가 의식의 태도를 결정하는 힘이 강하다.

도덕적인 행동 기준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요구, 즉 일반적인 도덕관과 완전히 일치한다. 일반적인 도덕관이 바뀌면 자기의 행동 기준도 바뀐다. 그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대해 큰 갈등을 겪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훌륭한 적응 양식으로 보이나 사실 이는 순응하는 것이지 적응하는 것이 아니다. 적응이란, 직접적인 주변의 그때 그때의 조건에 아무 마찰없이 맞추어 가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적응은 지역적, 시대적 조건보다 더 보편적인 법을 관조하기를 요구한다.

외향형은 외향적인 태도가 일방적으로 극단화될 때 자기의 주체를 소홀히 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주관적인 사실로서 가장 소홀히 되는 것은 신체이다. 그러므로 대개 외향형은 이상한 신체감각이 나타나야 비로소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신체의 이상은 흔히 일방적 외향적 태도의 무의식적인 보상작용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sup>9)10)</sup>

이러한 외향적 태도가 극단화될 때 외향적이 아닌 것은 모두 의식에서 배제되어 무의식에 억압되고, 이것이 오랫동안 지나치게 지속되면 의식의 태도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이한 무의식적인 경향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의식을 자극하게 된다.

이런 경우 무의식은 극단적인 내향적 경향을 띠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억압된 내향적 경향은 분화 발달될 기회를 잃게 되므로 억압이 오래도록 계속되고 의식에서 그것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막으면 막을수록 미분화된 원시적 고대적 특징을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무의식적 경향이 의식에 대한 적절한

대상의 정도를 넘어서서 의식에 대해서 거의 적대적인 반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적 태도와는 모순된 무의식적 경향이 의식 표면에 나타나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된다.<sup>11)</sup> 이럴 경우 겉으로 보아서는 어느 것이 그 사람의 의식적 태도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의 유형을 판단하기 힘든 것은 이 때문이다.<sup>12)</sup>

## (2) 내향형

내향적인 사람은 객체의 인상이 주체 안에서 형성한 것에 의거해서 사물을 본다. 내향적인 의식의 태도에도 물론 외적인 조건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지만 언제나 그 판단과 행동에 결정적인 것은 주관적인 속성이다.

정상적인 경우 내향적 태도는 원칙적으로 전승으로 주어진 정신 구조에 순종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구조는 자아가 아니라 자아이전에 존재하던 것, 다시 말해서 원형의 세계이며 자아를 훨씬 능가하는 자기이다. 건전한 내향형은 자기자신을 들여다 보며 이에 입각해서 판단, 또는 행동하려는 사람이며 자아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내향형은 자아를 자기와 혼동해서 뒤바꾸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즉, 자아의 판단을 극대화하고 그것이 절대적임을 주장하게 된다. 이때 그는 그의 장점인 무의식에 의 깊은 통찰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

외향형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내향형에도 외향적 경향이 있어서 적절하게 보상함으로써 내향적 태도의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내향적 태도가 극단적이 되어서 이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경향이 의식에서 배제되면, 무의식에는 의식의 경향과는 상반된 외향적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즉 모든 객체와의 관련성은 무의식에 억압되어 무의식의 태도는 객체중심적으로 바뀌어가며 객관적 기준, 외부세계, 타인 등의 객체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이러한 객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내향형은 자아의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객체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위험한 객체에 대하여 자아를 방어하려고 한다. 그러나 무의식적인 객관 세계와의 관계를 아주 끊어버리거나 객체로부터의 자극을 통제할 수 없어서 분방한 권력욕, 지배욕의 환상을 낳고 이 환상과 의식의 태도 사이의 갈등 속에서 점차 지치게 된다.<sup>13)</sup>

## 2. 정신의 4기능과 기능유형

정신의 기능은 네 가지로 분류된다. 사고, 감정, 감각, 직관기능이 그것이다. 앞의 두 기능, 사고와 감정 기능을 합리적 기능, 감각과 직관의 두 기능을 비합리적 기능이라 하여 구분하고, 이 각 기능을 구성하는 두 기능은 서로 극을 이루어 상극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사고와 감정은 두 기능이 모두 正, 不正, 快, 不快의 판단을 내리는 기능인데, 판단 과정이란 이치에 맞게 진행되는 것이여서 합리적 기능이라 불린다. 감각과 직관은 이성적 고려를 거치지 않는 직접적인 인식이므로 비합리적 기능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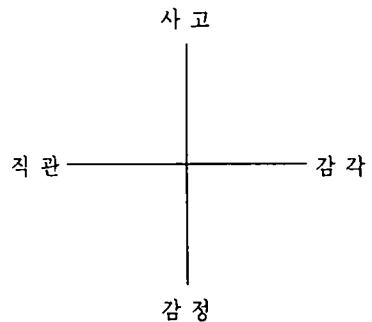


그림 2 정신의 4기능



(1) 사 고

사고란 주어진 관념내용을 그 고유의 법칙에 따라서로 연관시키는 정신 기능이다. 사고라 하면 판단 작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단순한 연상작용의 결과는 엄밀하게 말해서 사고가 아니다. 그러나 사고에는 능동적인 사고작용과 저절로 일어나는 수동적인 사고작용이 있다. 전자는 어떤 목적을 향하여 방향지어진 사고로서 의지적 판단작용이며 합리적 기능이지만, 후자는 일종의 직관적 사고라 할 만한 것으로 비합리적인 기능이다. 또한 감정적 사고 역시 논리적 원칙을 따르지 않고 감정에 종속된 사고이다. 사고가 분화한다는 것은 그것이 고대적인 것과 혼동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미분화기능의 특징은 미분화된 감정, 감각, 환상과 혼동되어 兩價傾向을 나타낸다.

사고는 두 가지 원천에서 나온다. 하나는 주관적인,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무의식적인 원천에서 주어지고, 다른 하나는 감각을 통한 지각으로 전달되는 객관적 사항에서 가져온 평가 기준이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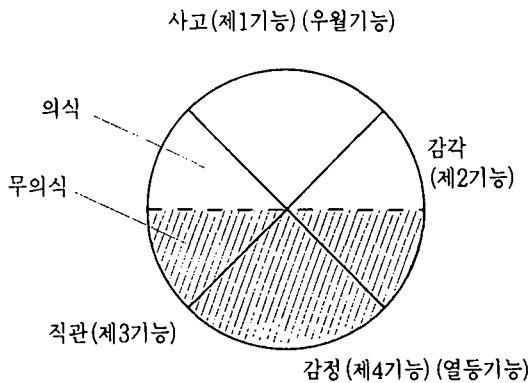


그림 3. 사고형의 각기능의 분화정도

하고 결정권을 갖는다. 그러므로 사고가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의 문제는 판단이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다르다. 또 하나의 구별점은 결론의 방향인데, 사고가 주로 외적인 방향을 취하는가 내적인 방향을 취하는가 하는데 있다.

1) 외향적 사고형

이 형의 사람은 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사고기능에 의하여 생활하는 형이다. 즉, 이 유형에서는 외향적 사고가 가장 잘 발달되어있고 이 형의 사람은 그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무엇보다도 객관적 상황에 합당한 지적 작업에 의거한다.

이러한 외향적 사고가 건전하게 움직이고 있는 한 이들은 단체의 조직에 능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고 개인 사이의 또는 경우에 따라 집단간의 분쟁 해결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외향적 사고형은 여러 가지 경험 자료를 종합해서 일반적인 견해에 도달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산출해 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재통합을 위해서 분석한 자료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견해에 재편입된다. 그러므로 이 사고는 기존가치의 절대부정이라기보다 파괴된 가치를 다른 가치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흐리멍덩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문제의 소재를 이성적으로 파악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일치된 의견에 도달하도록 한다.

외향적 사고형에서 가장 억압되는 것은 사고기능의 대극인 감정기능이다. 그리하여 감정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생명형태, 즉 미적 활동, 취미, 예술, 감상, 친교, 종교적 체험 같은 것이 모두 소홀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자기 성질의 감성적 측면을 억압하기 쉬우므로 남들에게는 인간적 온정이 없어 냉혹하며, 오만하게조차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억압이 너무 심하면, 미분화된 감정이 의식의 표면으로 표출되어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인 특징을 갖게

된다.<sup>14)</sup>

## 2) 내향적 사고형

이 유형의 사람들은 객관적 사실보다도 이념이나 관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사실 그 자체보다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즉 주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외향적 사고가 백과사전적인 풍성한 사실의 축적과 그 객관적 관련성에 대한 관심을 통하여 지식의 확장에 능하다면, 내향적 사고는 하나 하나의 관념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하여 지식의 심화에 이바지한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어떤 심오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sup>15)</sup> 더욱이 주관적인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에는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내향적 사고형에서 가장 억압되는 것은 감정 기능이다. 외향적 사고형 역시 감정 기능이 가장 억압되는 부분이나 외향적 사고형에서는 감정이 내향적 경향을 띄는데 반하여, 내향적 사고형은 외향적 감정 기능이 억압되는 것이 특징이다. 열등기능으로서의 감정은 흑백판단을 뚜렷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하고 사랑과 미움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약간은 맹목적인 경향도 가지게 된다.<sup>16)</sup>

## (2) 감 정

감정은 무엇보다도 자아와 주어진 내용사이에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다가 돌려보내든가 하는 일정한 가치(快, 不快)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그때 그때의 일시적인 의식의 내용이나 일시적인 지각과 관계없이 따로 氣分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다.

감정 기능은 무엇보다도 전적으로 주관적인 과정이어서 외부의 자극과 전혀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는 과정이다. 감정은 사고나 마찬가지로 이성의 법칙에 따라 진행되는 판단의 한 양식이다. 따라서 합리적 기능에 속한다. 감정이 그 정도가 고양되어 신체적으로 느낄 만큼이 되면 이를 情感이라 한다. 情感은 순수한 감정이 감각과 섞여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감정은 감각뿐 아니라 사고, 직관 등 다른 기능과 섞여 있는 수가 있다. 이런 혼돈상태는 특히 감정이 미분화상태에 있을 때 잘 일어난다.

감정도 사고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감정과 추상적 감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 감정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주관적 개인적 평가를 하는 것이지만 추상적 감정은 어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감정 상황을 규정한다. 또한 능동적인 감정과 수동적인 감정의 구별이 있다. 전자는 주체가 그의 의도에 따라 가치를 판단하고 후자는 어떤 내용이 감정을 자극하여 평가하도록 한다.<sup>17)</sup>

감정에 있어서도 외향과 내향의 구분을 적용할 수 있다. 외향적 감정은 객체적 기준이 그 감정 판단의 근거가 되고 내향적 감정은 주체의 기준이 판단 근거가 된다.

감정이란 결국 知的인 개념으로서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감정은 사고와는 대극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서로 相容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정신기능도 결코 다른 정신 기능으로 완전히 표현될 수 없듯이 어떠한 知的인 정의도 감정을 비교적 만족하게 표현할 수 없다.

### 1) 외향적 감정형

외향적 감정형은 자신의 감정 판단의 근거가 객체에 있다. 즉, 판단의 근거가 전통적인, 또는 일반적인 가치에 부합되는 감정 판단을 한다. 외향적 감정형의 사람이 '좋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정 상황에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편적인 감정에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보편적인 감정을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형의 사람들은 번덕이 심한 편인데 그것은 상황이 변하면 그것에 따라 그들의 감정도 같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히 기분파라는 말을 자주 듣는 경우가 있다.

이 형의 사람들은 쉽게 친구를 사귀고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 줌으로써 인간 관계에 기름을 치는 역할을 한다. 마치 파티에 있어서 여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형의 사람들은 탁월한 외향적 감정으로 상대방의 감정에 맞추어 줄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어떤 사람의 장단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행동한다. 그래서 내향형이 볼 때에는 너무도 과장적이고 피상적인 태도가 생각되고 또 너무 활동적이고 적극적이어서 거부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외향적 감정형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철학적인 사고는 더욱 그렇다. 그것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열등한 기능은 내향적 사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 무의식의 열등 기능이 그의 의식을 지배하기에 이르면, 이 유형의 사람들은 엄청난 자료의 축적을 한다. 그러나 사고의 기능이 미숙하므로 이것을 이미 형성된 사고 체계에 그대로 맞추는 작업을 할 뿐이다.

## 2) 내향적 감정형

내향적 감정형은 무척 분화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정은 내적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므로 밖으로 표현되지도 않고 객체에 작용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흔히 이들은 말수가 적고, 접근하기 어렵고, 무관심하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그들의 분화된 내향적 감정은 무엇이 내적으로 진실로 중요한 요소인가를 볼 줄 안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사람들은 윤리적 지주가 되는 경

우가 많다. 결코 설교하거나 자기를 주장하지도 않지만, 내적인 기준에 의해 생활하기 때문에 그것이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내향적 감정형의 가장 열등한 기능은 사고 기능이다. 이 사고도 古態의이고 還元的인 경향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무의식적인 환원적 사고, 즉 깎아내리는 생각은 그것이 감정기능의 전횡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동안에는 자아로 하여금 주체로 눈을 돌리게 하는데 좋은 대상작용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의식적인 사고를 지나치게 억압하면 무의식은 의식과는 相容할 수 없는 극단적인 대극을 이루게 된다.

내향적 감정형이 자기의 무의식의 외향적 사고기능을 창조적인 작업에 이용하려 들 때 그는 외향형보다 더욱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자료에 더욱 압도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너무 자세히 세밀하게 하려고 하므로 일을 효과적으로 끝내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일종의 편집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3) 감 각

감각이란 물리적 자극이 인식을 매개하는 심리 기능이다. 즉,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자극에 대한 모든 의식적 경험<sup>18)</sup>을 포함한다. 이것은 사고나 감정처럼 이성의 법칙을 통한 판단이 아니다. 따라서 비합리적 기능에 속한다.

감각도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의 구분이 있는데 구체적 감각은 순수하게 나타나지 않고 늘 추상, 감정, 사고와 섞여있다. 추상적 감각은 이렇게 섞이지 않고, 그 자체의 원리를 쫓아서 지각하는 것인데 미적 감각이라 부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sup>19)</sup>

감각에서도 외향적 감각과 내향적 감각이 있다. 감각이란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개체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객체의 자극에 의해 감각작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향적

감각에 있어서는 그 과정이 다르다. 즉, 지각되는 객체 이외에 지각하는 주체가 있고, 이 주체는 객관적 자극에다 그의 주관적 소질을 부여한다.<sup>20)</sup> 외향적 감각에 있어서는 감각은 주로 객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유형의 사람의 가치 기준은 오직 객관적인 성질로써 규정된 감각강도이다.

### 1) 외향적 감각형

이 유형의 사람은 어떤 형과도 비길 수 없는 현실 주의자이다. 이 유형의 사람이 객관적 사실을 感得하는 능력은 비상하게 발달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현실적인 경험을 실재 없이 쌓아 나가는 사람이다. 사고나 감정과 같은 합리적 판단 기능이 적당히 대상을 하지 않는 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반성하고 정리할 겨를이 없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또 강렬한 감각적 자극을 주는 대상을 향하여 이를 感得해 나간다.<sup>21)</sup>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외부적 사실을 재빠르게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와 관계를 맺는 데 비상한 재간을 가진다. 이러한 감각을 잘 활용하는 경우는 자신의 취미 등에 관심이 많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미주의자나 쾌락주의자로 보일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은 숙고하는 일이 별로 없고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일도 없다. 직관은 가장 열등한 기능으로 완전히 의식에서 사라져 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연과학이나 실제 기술만이 진실이고 나머지는 환상이며 이론이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외향형 감각형이 그의 직관기능을 지나치게 억압하면 직관은 의혹의 성격을 띠고 외계로 투사된다. 그래서 본래는 감각에 대한 보상작용을 해주는 직관이 의심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하여 귀신이나 신비한 이야기에 관심을 두게 되며 각종 신비주의적 종교에도 쉽게 도취된다.

### 2) 내향적 감각형

내향적 감각형에서는 객관적 자극에 의해서 생긴 주관적 감각 부분이 행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외적 대상과 거리를 두고서 자기 자신의 정신적 감각에 몰두한다. 그러나 이들은 고도로 예민한 사진건판과 같아서 외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감각적인 부분을 지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 풍경이 그에게 내적으로 감동을 주었을 때의 경우이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내향적 감각형의 무의식에서 가장 심하게 억압되는 것은 직관기능이다. 이 직관기능은 외향적인 성격을 띠며 고태적이고 부정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본래 외향적 직관기능은 외부의 현실에서의 가능성에 대하여 즉시 인지할 수 있으나 내향적 감각형의 무의식의 직관은 현실의 가능성을 알아맞추기보다는 공연히 현실의 어둡고 음산하고 不可解하고 위협스러운 배경을 예측하려고 하여, 때로는 잘 알아맞추나 대부분 현실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

### (4) 직 관

직관이란 무의식적인 방법으로 인식을 유도하는 심리현상이다. 직관 내용은 감각내용과 마찬가지로 사고나 감정 내용처럼 유도되거나 표현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것은 이성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닌 비합리적 기능에 속하고 직접 발견하고 직접 지각한다. 그러므로 직관적 인식은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직관은 주관적 형태와 객관적 형태로 나타난다. 전자는 주관적 영역인 무의식의 심리적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후자는 객체에 있어서의 下知覺과 그 인식을 통해서 야기된 下感情과 사고에 의한 객관적 사실의 인식이다.

또 구체적 직관은 사물의 사실성의 인식을, 추상

적 직관은 이념적 관련성의 인식을 증개한다. 구체적 직관은 하나의 반응의 과정이지만, 추상적 직관은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들, 또는 의지나 의도를 필요로 하는 직관이다.

직관에 있어서 내향과 외향은 직관이 주로 인식과 내적조명이나와 주로 외적으로 行動遂行의 방향으로 귀결되느냐에 따라 구분한다.

#### 1) 외향적 직관형

외향적 직관은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것이 객관세계에서 실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sup>22)</sup> 따라서 외향적 직관형은 미래를 창조하는데 어떤 계기나 도움을 주는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직관을 오랫동안 부지런히 좇지 못해 새로운 직관에 담벼들어야 한다. 너무도 외향적 직관기능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인식을 정리하고 저장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선다. 어떠한 기업이나 이론의 추진가로서 굉장히 노력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유지되기는 힘들다. 어떠한 정해진 일에는 쉽게 싫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외향적 직관형에서 가장 열등한 기능은 감각, 특히 내향적 감각이다. 이것은 자신의 신체 감각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피곤이나 시장기도 모르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가 신체에 이상이 생기면 비로소 자기의 신체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내향적 감각이 지나치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신체 감각에 매달리게 된다.<sup>23)</sup>

#### 2) 내향적 직관형

이 유형의 사람들은 직관기능이 객체가 아닌 내적인 세계로 향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원시적 요소들이 어떻게 변해 가고

있으며,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뛰어나다. 즉,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가능성보다 정신세계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이 그의 주된 특징이다. 그러므로 종교적 예언가, 선각자 등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진리를 깨달아도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아주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이해시키지 못하고 몽상가라든지 신비주의자라는 평을 듣는 수도 많다. 소위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인 것이다.

내향적 직관형에서 가장 열등한 기능은 감각기능, 특히 외향적 감각기능이다. 내향적 직관형에서는 현실감각이 극도로 결여되기 쉽다. 외부적인 사실에 대해 주의를 집중하고, 이것을 충실히 기술하는 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흔히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게 된다.

이러한 것이 너무도 지나치면 무의식에 억압된 감각이 범람하게 된다. 그리하여 쉽게 충동에 사로잡히며 강박적으로 객체적 감각에 구속된다.

### IV. 열등기능에 대해서<sup>24)</sup>

용의 학설은 누구나 4기능 중 정상적으로 어느 하나의 주기능 또는 우월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그의 대극이 되는 열등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학교에서의 수재가 사회에서의 낙제생이 되는 경우라던지가 이런 경우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유능하다던지 무능하다던지라고 평가를 내리는 것은 모든 정신기능이 분화되거나 미분화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상당히 잘못된 편견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열등기능이라 하면 항상 열등한 체로 있는 기능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열등기능은 아직 분화되지 않은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분화될 수 있고 또 전인격의 실현을 위해서는 분화되어야 할 기능이다. 열등기능의 분화발달은 자기 실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열등기능의 특징은 나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다. 다른사람의 나에대한 여러 가지 지적, 비난, 비평 가운데 특히 나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중 어느부분인가를 살펴보면 본인의 열등기능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의 말이 바로 나의 열등기능을 건드릴 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충격을 받아서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반응을 나타낸다. 신경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특히 신경을 써서 일을 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열등기능의 代償인데 주기능과 달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너무 過代償하면 그 기능은 주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철저하고 완벽하게 그 기능의 특성이 발휘된다.

열등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미련한가를 보는데 있다. 미련하다는 말은 열등기능과 그로 인해 말미암은 미숙성을 잘 표현해 준다.

열등기능을 의식화하려면 자신의 열등성을 받아들일만한 용기가 필요하다.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흔히 이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버리고 계속 열등한 기능으로 생활하게끔 하면 처음에는 미숙했던 감정들이 점차 분화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열등기능의 의식화에는 주기능의 일시적인 희생이 필요하다. 자신의 장기를 늦추고 열등한 기능이 의식화되기를 기다려야한다.

열등의식의 분화는 자기실현을 위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열등의식의 분화를 성취하는 것이 더욱 유능한 사회인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 V. 李濟馬와 兪의 비교 고찰

兪은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관찰하는데 있어서 의식, 개인적 무의식, 집단적 무의식, 자기라는 四位論적인 관점을 사용하였고 심리적 유형론을 직관형, 감정형, 감각형, 사고형의 4개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四位論적인 관점은 이제마에 있어서의 事心身物의 방법을 통한 관찰<sup>25)</sup>과 유사하고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의 四象人의 분류와도 비슷한 점이 있다.<sup>26)</sup> 이에 본 고찰을 통하여 이를 비교, 검토해보겠다.

### 1. 知人<sup>27)</sup>에 있어서의 李濟馬와 兪의 비교

兪과 이제마는 모두 知人을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여기서의 知人이란 인간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의미에서의 안다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무의식까지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를 파악하는 것을 兪은 강조하였고 이제마는 사람의 仁義禮智인性和 鄙薄貪懶의 心慾을 파악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제마는 喜怒哀樂의 暴動浪動이 모두 行身不誠 知人不明에서 나온다<sup>28)</sup>고 하였고 兪은 지나친 무의식을 지나치게 억압하면 이것은 의식으로 범람하는데 이때 古態的이고 還元的인 반응이 나온다고 하여 知人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이제마는 사람은 惡人이라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仁義禮智의 恒衷이 있고 비록 好人이지만 鄙薄貪懶의 陋慾이 있다<sup>29)</sup>고 하였고 이는 知人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된다. 또 그는 한사람의 마음속에서도 君子之心과 小人之心이 있는데 전자는 쉽게 알아낼 수 있으나 후자는 그렇지 못하며, 어느 쪽이 많느냐에 따라서 君子도 되고 小人도 될 수 있다<sup>30)</sup>고 하였다. 이는 兪이 말한 그림자라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

다. 용에 있어서 그림자는 의식에 가려져 있는 것으로 부정적이고 악한 면을 가지고 있다. 의식에 가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그림자를 잘 분화시켜서 의식화를 시키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원활해 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그림자의 투사가 이루어져 악한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만약 이제마가 말한 君子之心은 의식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가정하고 小人之心은 무의식에 숨어있는 부분이라고 가정한다면<sup>31)</sup> 의식화되어 있는 君子之心은 易知의 부분이 되고, 무의식에 있는 小人之心은 難知가 됨은 쉽게 설명이 된다. 이제마는 獨行篇에서 鄙薄貪懦의 부분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이는 心慾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러한 심욕을 밝게 하는 것이 知人에 있어서 중요함을 말하였다.<sup>32)</sup> 또, 이렇게 知人한 연후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治心正己를 해야 함을 말하고 이는 이제마의 학문정신의 핵심이 된다.<sup>33)</sup> 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식화된 부분보다는 무의식의 부분을 강조하였고 이를 잘 파악하여 분화시키는 것이 자기실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함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즉, 이제마의 知人正己 정신과 용의 무의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한 무의식의 분화의 작업은 보다 완성된 인격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이제마는 聖人과 衆人을 예로 들면서 聖人は 心, 즉 中央之太極이 衆人보다 높고 또 四維之四象은 衆人의 그것보다 두루 통한 사람이라 하였다.<sup>34)</sup> 즉, 聖人は 자신의 무의식에 대한 분화가 衆人보다 더욱 잘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고 그리하여 같은 속성의 衆人의 우월기능과 聖人의 열등기능을 비교하였을 때<sup>35)</sup> 聖人의 열등기능이 衆人의 우월기능보다 더 자연스럽고 분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聖人は 衆人보다 心慾에 있어서 깨끗하기 때문에 衆人들이 希하는 바이지만 聖人也 역시 太少陰

陽의 臟局長短이 있어서 天이 그 希하는 바라고 하였다.<sup>36)</sup> 즉, 聖人이라 해도 자신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때문에 더 완전한 존재인 天을 회구하는 것이다. 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실현이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 즉 부처, 예수 같은 위대한 종교적 지도자는 이 목표의 가장 가까이까지 간 사람이라고 하였다.<sup>37)</sup>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무의식의 탐구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 때문에 완전하게 무의식을 알아내어 분화시키는 것은 힘들다고 하였다.

이제마는 이러한 知人正己 정신은 철학적 원리에서 실용적 응용으로 발전하여 구체화하게 된다. 즉 體質的 知人論이 나왔으며 거기에 따른 體質的 正己論이 나오게 된다.<sup>38)</sup> 이것을 집대성한 것이 東醫壽世保元이라 할 수 있다.

## 2. 유형론에 있어서의 李濟馬와 용의 비교

앞서 말한대로 이제마의 인식체계는 事心身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格致藁뿐만이 아닌 東醫壽世保元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제마의 體質의 인식도 역시 이를 기초로 하여 나왔다고 할 수 있다. 儒略 事物篇의 事心身物의 순서와 각각의 관계는 陰陽적 편차와 순서를 정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事와 心의 관계, 身과 物의 관계, 心과 身의 관계, 事와 物의 관계를 對待的인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sup>39)</sup>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관계는 용이 설정한 정신의 4기능의 관계와도 유사한 점이 많다.<sup>40)</sup> 만일 이러한 관계를 體質에도 적용을 시킨다면 耳聽天時의 기운이 발달한 太陽人을 事로 설정할 수 있고, 目視世會하는 기운이 발달한 少陽人을 心에, 脾嗅人倫의 기운이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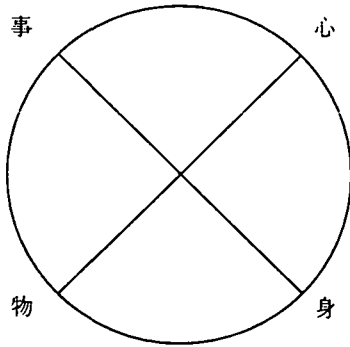


그림 4. 事心身物の 對待關係

事와 心은 同類로서, 事와 物은 陰陽으로, 身과 物은 同類로서, 心과 身은 陰陽으로 對待關係를 이룬다.

한 太陰人을 身에, 口味地方의 기운이 발달한 少陰人은 物에 놓을 수 있을 것이다.<sup>41)</sup> 이러한 식으로 배치를 한다면 太陽人과 太陰人은 서로 대극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少陰人과 少陽人 역시 서로 대극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太陽人에 있어서 事에 해당하는 부분은 易知의 부분으로 잘 분화되어 있는 곳이지만 대극이 되는 身의 부분은 難知의 부분으로 가장 미분화되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太陽人에 있어서 事에 해당하는 肺는 발달한 臟器가 되나 미분화가 되어있는 身에 해당하는 肝은 가장 열등한 기능을 보이므로 肺大肝小의 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다.<sup>42)</sup>

위와 같은 관계는 다른 體質의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少陽人의 脾大胃小, 太陰人의 肝大肺小, 少陰人의 腎大脾小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제마는 大同, 各立, 博通, 獨行의 4구조와 好善, 惡惡, 邪心, 怠行의 4구조를 말하였는데, 大同과 各立은 性氣와 情氣로 각 四象人에게 배속이 된다. 性氣와 情氣는 天稟의 것으로 의식의 부분에 속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각각 好善과 惡惡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善과 惡의 개념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善을 '잘한다, 익숙하고 능란하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惡을 '모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sup>43)</sup> 好善의 부분은 惡惡보다 더욱 분화된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다. 즉, 好善의 부분에서는 항상 적절한 상황의 판단을 할 수 있으나 惡惡의 부분은 때에 따라서는 적절치 못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이제마는 遠散, 宏抱, 廣張, 深確이라 하여 好善에 있어서는 그 원만한 모습을 말하였으나 惡惡의 부분은 促急이라 하여 항상 적절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님을 말하였다.<sup>44)</sup> 즉, 好善은 惡惡보다 더욱 의식화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博通과 獨行은 각각 行其知와 行其行으로 배속되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는데 만일 그렇지 못하면 邪心怠行인 驕矜伐誇之心과 奪侈懶竊之心이 생긴다고 경계하였다.<sup>45)</sup> 이것은 性氣와 情氣에 비해 難知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무의식의 부분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으며 항상 무의식에 대한 분석과 그것을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무의식이 잘 분화되어 나타날 때의 상황과 그렇지 못하고 왜곡되어 나타날 때의 상황을 같이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음은 제1기능(우월기능), 제2기능, 제3기능, 제4기능(열등기능)의 4가지 기능의 구분을 두었는데 이는 이제마의 것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太陽人에 있어서는 事에 해당하는 好善의 부분이 우월기능이 되고 身에 해당하는 行其知의 부분은 열등기능이 된다. 心에 해당하는 惡惡의 부분은 제2기능이 될 것이고 物에 해당하는 行其行의 부분은 제3기능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배속은 다른 體質의 사람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sup>46)</sup>



四象人の 臟理의 특성은 偏小之臟의 기능을 더 중요시하여 偏小之臟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것이 保命之主가 된다.<sup>47)</sup> 음에 있어서도 열등기능의 관리 는 매우 중요하여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종의 병이 생긴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볼 때 이제마의 體質에 관한 관점과 음 이 나눈 유형에 관한 관점은 유사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나 四象人이 음이 말하는 각각의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가를 정하는 것은 앞으로의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것을 원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일대일의 대응으로서의 연결은 세 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VII. 결 론

음과 東武 李濟馬의 知人論과 인간의 유형 연구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음의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탐구한 작업이나 李濟馬의 知人論은 각각의 類型論의 기본개념 설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들은 인간의 심성의 분석을 통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類型論을 개발해내었다.

2. 인식의 체계로서는 음은 의식, 개인적 무의식, 집단적 무의식, 자기의 四象論的 構造로, 李濟馬는 事心身物의 四象論的 構造로서 인간을 설명하려 하였다. 그리고 유형론으로는 음은 사고형, 감정형, 감각형, 직관형의 4개로, 이제마는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의 4개로 나누었다. 공통적으로 四象論的 構造라는 점에 양자간의 유사성이 있다.

3. 음은 의식과 무의식을 탐구하였고 李濟馬는 仁義禮智인 性과 鄙薄貪懶의 心慾을 탐구하였는데 양자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또, 의식, 무의식과 君子之心, 小人之心의 관련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4. 李濟馬의 大同, 各立, 行其知, 行其行과 好善, 惡惡, 邪心, 怠行 그리고 臟腑의 大小關係등은 음이 말한 제1기능(우월기능), 제2기능, 제3기능, 제4기능(열등기능)의 구분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5. 음의 사고형, 감정형, 감각형, 직관형의 4분류와 李濟馬의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과의 관계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1. 高炳熙, 李濟馬의 心論에 關한 小考, 서울: 大韓韓醫學會誌, Vol. 5, No. 1
2. 金度淳, 東醫心學礎稿, 서울: 사상의학회지, Vol. 5, No. 1, 1993
3. 金度淳, 心の 氣的考察,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博士課程 第3期中間發表, 1992
4. 金鐘元, 李濟馬의 獨行篇에 對한 考察, 서울: 사상의학회지, Vol. 6, No. 1, 1994
5. 成百曉譯註, 大學·中庸集註,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3
6. 宋一炳, 알기쉬운 사상의학, 서울: 하나미디어, 1993
7. 宋一炳, 李濟馬 哲學의 學問的 背景과 四象醫學의 成立에 對한 考察, 서울: 사상의학회지 Vol. 3, No. 1, 1991
8.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的 背景에 對한 考察, 서울: 사상의학회지, Vol. 4, No. 1, 1992
9. 李符永, 分析心理學, 서울: 一潮閣, 1994
10. 李乙浩, 洪淳用, 四象醫學原論, 서울: 杏林出版社, 1982

11. 李濟馬著, 朴奭彥譯, 格致藁, 서울:太陽社 1985
12. 李昌壹, 東武 李濟馬 思想의 基本構造, 서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13. 張賢鎮, 李濟馬의 知人論에 對한 研究,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博士課程 第3期 中間發表, 1992
14. 趙晁盛, 李濟馬의 格致藁中「儒略」에 關한 考察, 서울:사상의학회지, Vol. 3, No. 1, 1991
15. C. G. 음, C. S. 흘, J. 야코비著, 설명환 옮김, 음 심리학 해설, 서울:선영사, 1992

### 주(註)

1. 宋一炳, 알기쉬운 사상의학, 서울:하나미디어, 1993, p125
2. 宋一炳, 알기쉬운 사상의학, 서울:하나미디어, 1993, p126
3. 여기서 四象이란 네가지 象을 말한다.
4. 宋一炳, 李濟馬 哲學의 學問的 背景과 四象醫學의 成立에 對한 考察, 서울:사상의학회지 vol.3 No.1 1991 p4
5. 宋一炳, 알기쉬운 사상의학, 서울:하나미디어 1993 p124
6. 李符永, 分析心理學, 서울:一潮閣, 1994; C. G 음外, 음 심리학 해설, 설명환 옮김, 서울:선영사, 1992
7. 李符永의 分析心理學과 설명환의 음 심리학 이해를 위주로 하였다.
8. 李符永의 分析心理學과 설명환의 음 심리학 이해를 위주로 하였다.
9. 갑작스레 명성을 올린 가수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대를 맞추려하다가 갑자기 고음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자수성가하여 성공일로를 걸던 한 기업가가 고산병같은 호흡곤란 증세를 겪는다는지 하는 예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결국 그 개체로 하여금 외향적인 태도를 정지시키고 주체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왕왕 그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무척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10. 외향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징적인 신경증은 히스테리성 노이로제인데 이는 항상 남의 관심을 끌고 주변에 인상을 주려는 것이다. 이것은 외향적 태도의 과장에 대한 무의식의 보상반응이다.
11. 객관적 표준에 의하여 공정무사하게 사무를 처리하며 항상 남과 사회를 위하여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때때로,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해치우려는 끝없는 아집과 횡포를 부려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경우가 이러한 예이다.
12. 대개 판단하는 입장에서 서 있는 관찰자는 의식의 성격측면을 파악하고, 지각하는 입장에서 서있는 관찰자는 무의식적인 성격에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판단은 정신현상의 의식적 동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각은 단지 일어난 일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13. 극단적인 내향형의 경우 생기기쉬운 신경증은 신경쇠약증이다.
14. 회사에서는 누구와도 대화를 잘 나누지만 집에 오면 폭군이 되는 가장이라든지 이따금 정신병적 괴물로 변하는 하이드박사가 그 예이다.
15. 내향형 사고형은 선생으로서는 좋은 평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의 심리를 잘 모르기도 하고, 자신이 아는 바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데 서투르기 때문이다.
16. 주기능과 열등기능의 과대상은 겉으로는 구분하

기 어려운 듯 보이나 열등기능의 과대상은 늘 강박적이고 완전무결성을 지향하여 다소 경화된 느낌을 주지만 주기능은 극히 자유스러워서 오히려 빈틈이 있는 것 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열등기능의 특징은 그 개체로 하여금 특히 신경을 건드리고 신경을 쓰게 하는 데 있다.

17. 예를 들면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 것' 과 '그녀의 매력에 끌리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작용이요 행위이나 후자는 상태이다. 후자는 非志向的인 감정적 직관으로 전자가 합리적인데 반해 후자는 비합리적이다.
18.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및 몸 안에서 비롯되는 감각
19. 예를 들어 꽃을 보았을 때의 반응이 구체적 감각에서는 꽃이 주는 감각적 자극 뿐 아니라 그 꽃을 봄으로서 일어나는 快, 不快의 감정, 추상, 그 꽃이 어떤 과에 속하는가하는 생각, 빛깔, 모양, 냄새 등등이 감각과정에 섞이게 되나, 추상적 감각은 이러한 것이 배제된 그 꽃의 타는 듯한 붉은 빛깔만이 의식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술가에게서 볼 수 있고, 미적 감각태도를 의지에 의해 키워나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감각의 근원적 형태는 추상적 감각이 아닌 구체적 감각이 된다. 이는 다른 기능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능의 근원은 구체적이고 고태적이다.
20. 한 예로 똑같은 풍경을 놓고 그렸는데도 그 그림은 사람마다 다르다. 특히 예술가에 있어서는 객체가 발하는 자극을 그대로 충실히 캔버스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요소에 의해 달라진 주관적 감각을 표현한다.
21. 외향적 감각형에서는 실제적인 객관적 사물이나 사실이 더욱 중요시된다. 직물의 감촉을 통해서

이것이 합성섬유인지 순면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고, 좌중의 사람 가운데에서 자기의전에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의 수를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2. 이러한 사람들은 미래의 세계에 무엇이 일어날 것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어떤 사업이 장래성이 있을 것인가, 주식은 어떠한 주식을 사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와 같은 예측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23. 이런 경우 건강염려증이 생기기 쉽다.
24. 李符永의 分析心理學과 설영환의 응 심리학의 이해를 위주로 하였다.
25. 李濟馬에 있어서 관찰의 기본 단위는 事心身物이다. (宋一炳, 李濟馬 哲學의 學問的 背景과 四象 醫學의 成立에 對한 考察, 서울 : 사상의학회지, Vol. 3, No. 1, 1992, p2)
26. 張賢鎮, 李濟馬의 知人論에 對한 研究, 서울 : 慶熙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博士課程 第3期 中間發表, 1992 pp5, 6 참조
27. 응이 知人이란 용어를 쓰지는 않았으나 응이 인간을 파악하는 작업은 知人의 작업이라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응의 인간 탐구도 知人이란 용어로 쓰겠다.
28. 天下喜怒哀樂之暴動浪動者 都出於行身不誠而 知人不明也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9. 竭智而察人, 則無不知人也. 而必也誠身然後, 知人云者何也? 曰: 雖則察人必也入誠, 不見其晝則不知其夜, 不見其夏則不知其冬, 不見其是則不知其非, 不見其誠則不知其僞 (格致彙 獨行篇)
30. 以一人之心 而有君子之心焉 有小人之心焉 君子之心 易知 小人之心 難知 易知之心 多 而難知之心 少者 名曰君子 難知之心 多 而易知之心 少者 名曰小人 (格致彙 兌箴 下截)

31. 知人함에 있어서 難知之心과 易知之心이 함께 있다함은 人間의 마음에 意識과 無意識이 있음을 표현 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難知之心의 밝힘이 知人이라는 것이 되며 無意識 속에 내재된 모든 사람들의 心性 開發이 知人의 방법이며 동시에 目的이 되는 것이다. (張賢鎮, 李濟馬의 知人論에 對한 研究,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博士課程 第3期 中間發表, 1992 p3)
32. 易知之心 知之則 明德也 難知之心 知之則 新民也 (格致藁 兪箴 下截)이라 했듯이 易知之心은 밝은 덕이라 하였다. 이는 大學의 첫 구절인 大學之道 在明明德大 在於新民 在止於至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朱子의 註를 보면 明者 明之也 明德者 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也 ... 新者 革其舊之謂也 言既自明其明德 又當推以及人 使之亦有以去其舊染之汚也라고 하여 明德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바이고 虛靈하고 어둡지 않아 衆理를 갖추어 있고 萬事에 응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음이 말한 의식의 부분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4기능중의 우월기능의 표현과도 유사한 점이 많다. 음이 말한 우월기능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萬事에 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新民은 옛날에 물든 더러움을 제거함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해 무의식의 고태적이고 환원적인 속성을 분화시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成百曉譯註 大學·中庸集註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3 p23 참조)
33. 宋一炳, 李濟馬 哲學의 學問的 背景과 四象 醫學의 成立에 對한 考察, 서울: 사상의학회지 Vol.3 No.1 1991 p.4
34. 五臟之心 中央之太極也 五臟之肺脾肝腎 四維之 四象也 中央之太極 聖人之太極 高出於衆人之太極也 四維之四象 聖人之四象 旁通於衆人之四象也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35. 예를 들어 衆人중의 少陰人과 聖人중의 少陽人을 놓고 각각 物에 해당하는 속성을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36. 太少陰陽之短長變化 一同之中 有四偏 聖人 所以希天也 鄙薄貪懦之清濁闊狹 萬殊之中 有一同 衆人 所以希聖也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37. C.G. 음 외, 음 심리학 해설, 설명환 옮김, 서울: 선영사, 1992, p105
38. 宋一炳, 李濟馬 哲學의 學問的 背景과 四象 醫學의 成立에 對한 考察, 서울: 사상의학회지 vol.3 No.1 1991 p4
39. 趙晃盛, 李濟馬의 格致藁中 儒略에 關한 考察, 서울: 사상의학회지, Vol. 3, No.1, 1991 p63 참조
40. 앞의 그림 2, 그림 3 참조
41. 耳와 天時가 事에 속함과 目과 世會가 心에 속함과 鼻와 人倫이 身에 속함과 口와 地方이 物에 속함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의 背景에 對한 考察, 서울: 사상의학회지, Vol. 4, No1. 1992 p14) 四象人을 事心身物에 직접 연결하는 것은 어폐가 있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가장 발달한 기능을 위주로 연결하였다.
42. 肺大肝小者 名曰 太陽人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43.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館 1990 pp252, 472
44. 太陽人 哀性遠散而 怒情促急 哀性遠散則 氣注肺而 肺益盛 怒情促急則 氣激肝而 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 怒性宏抱而 哀情促急 怒性宏抱則 氣注脾而 脾益盛 哀情促急則 氣激腎而 腎益削 少陽之

臟局 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 喜性廣張而 樂情促急 喜性廣張則 氣注肝而 肝益盛 樂情促急則 氣激肺而 肺益削 太陰之臟局 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 樂性深確而 喜情促急 樂性深確則 氣注腎而 腎益盛 喜情促急則 氣激脾而 脾益削 少陰之臟局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45. 太陰之頤宜戒驕心 太陰之頤若無驕心 絕世之籌策 必在此也 少陰之臆 宜戒矜心 少陰之臆 若無矜心 絕世之經綸 必在此也 太陽之臍 宜戒伐心 太陽之臍 若無伐心 絕世之行檢 必在此也 少陽之腹 宜

戒夸心 少陽之腹 若無夸心 絕世之度量 必在此也 少陰之頭 宜戒奪心 少陰之頭 若無奪心 大人之識見 必在此也 太陰之肩 宜戒侈心 太陰之肩 若無侈心 大人之威儀 必在此也 少陽之腰 宜戒懶心 少陽之腰 若無懶心 大人之材幹 必在此也 太陽之臀 宜戒竊心 太陽之臀 若無竊心 大人之方略 必在此也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46. 張賢鎮, 李濟馬의 知人論에 對한 研究,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博士課程 第3期 中間發表, 1992 참조
47. 宋一炳, 알기쉬운 사상의학, 서울: 하나미디어 1993 p249

## Abstract

### **The comparison study of the structure of mind and psychologic type of C.G Jung to Ji-In-Lon and Sa-Sang constitution of Lee Je Ma**

*In-Tae Kim, Byung-Hee Ko*

Dept. of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 Seoul, Korea

As considering a comparison study of the structure of mind and psychologic type of C.G Jung to Ji-In-Lon and Sa-Sang constitution of Lee Je Ma, I've got the following conclusion.

1. The study of the structure of mind of Jung and Ji-In-Lon of Lee Je ma have a important meaning to each theory of type of men. They developed their own peculiar theory of type of men by the analysis of the mind of men.

2. Jung explained the organization of recognition by four phase theoretical structure; consciousness, personal unconsciousness, collective unconsciousness, self. Lee Je Ma explained the organization of recognition by four phase theoretical structure; Sa, Sim, Sin, Mul. And theory of type of men, Jung established four type; thinking type, feeling type, sensation type, intuition type, and Lee Je Ma too established four type; Tae-Yang-In, Tae-Um-In, So-Yang-In, So-Um-In. They all established the four phase structure, which have things in common.

3. Jung studied the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and Lee Je Ma studied the Sung - In, Eui, Ye, Ji, and Sim-Yock - Bi, Bak, Tam, Na. I think they have a close relationship. And I think there is relationship between consciousness, unconsciousness to Gun-Ja-Ji-Sim, So-In-Ji-Sim.

4. I think there is thought of relationship between Lee Je Ma's Dae-Dong, Gak-lip, Hang-gi-ji, Hang-gi-hang and Ho-sun, Oh-ak, Sa-sim, Tae-hang and relationship of internal organ's size to Jung's the first function, second function, third function, fourth function.

5. I 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Jung; thinking type, feeling type, sensation type, intuition type to the type of Lee Je Ma; Tae-Yang-In, Tae-Um-In, So-Yang-In, So-Um-In needs more study.